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한 해부설명회 적용 후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자기평가요인과 학업성취도 상관관계 분석

김광환*, 김지희**, 박정현***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교실
e-mail: jhpark@kangwon.ac.kr

Introduction of Explanation Meeting in Cadaveric Dissection Using Communication Skill : Correlation between Self-Evaluation Factor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edical Students

Kwang-Hwan Kim[1] Jee-Hee Kim[2] Jeong-Hyun Park[3*]
[1]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2]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3*]Department of Anatomy, School of Medici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해부학 실습 교육과정에 해부설명회를 도입에 따른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자기평가요인(만족도, 전공 연계성, 운영 적절성, 의사소통)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008-2009 학년도 1학기 해부학 실습 교육을 받은 의학전문대학원생들(n=102)이 일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해부설명회에 참가하였고, 보건 의료 계통의 학부생들에게 사체를 활용하여 인체 구조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마친 후 설문지와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 평가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2008-2009 학년도 해부학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평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과거 경험 유무 등의 일반적 특성과 상관없이 만족도, 전공 연계성, 운영 적절성, 언어적 및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모두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자기 평가 요인 중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었다($p<0.05$). 또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r=0.580$, $p<0.01$). 결론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해부설명회의 도입은 의전원 학생들에게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며,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갖게 하였다. 아울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타 전공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학문적 이해의 폭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해부학 실습의 개선 방안으로서 해부설명회의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1. 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언론학에서 유래된 용어지만, 의료계에서도 의학지식의 폭발적 증가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요구 변화로 인해 의료인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 및 기술 습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다. 특히 환자-의사 관계에 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치료효과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pstein & Hundert, 2002; Haq et al., 2004; Shaw et al., 2007). 또한 국내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에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가르치고 기존 과목에 이를 접목하고자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Hahn & Kim, 2009). 의과대학 및 의전원 학생과 의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행한 결과, 의료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하였으며,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Choi et al., 2004; Kim et al., 2006; Lee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2009 학년도 해부학 실습 교육을 받은 의전원 학생들이 해부설명회에 참가하여 건강-의료 계통의 학부생들에게 사체를 활용하여 인체 구조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마친 후 설문지와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 평가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이들의 해부학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부학 실습교육의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서,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한 해부설명회의 도입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해부설명회 준비 및 진행과정

해부학 강의 및 실습을 마친 의전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실습시간을 활용하여 동일대학교에 소속된 건강-의료 관련 전공 학부생(간호학과, 스포츠과학부, 응급구조학과, 치위생학과)들에게 본인이 실습한 사체를 활용하여 설명, 토론하는 해부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해부설명회의 전체과정은 해부설명회의 도입배경 설명(1시간), 의료 커뮤니케이션 강의(1시간), 해부실습용 사체 준비(4시간), 해부설명회 리허설(2시간), 해부설명회 개최(4시간), 사후 설문조사 및 소감문을 통한 평가 등으로 진행하였다. 참가자 4명과 설명자 1명이 실습조가 되어 사체 각 1구당 20-30분 동안 설명,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였다. 설명회 종료 후 의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소감문은 추후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2.2 조사도구 및 자료의 처리

본 연구 대상의 설문조사를 위하여 해당 전공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교육효과를 평가 하는 선행연구(Kim et al., 2006; Kim et al., 2007b; Lee et al., 2007)를 참조하여 설문문항을 자체 개발하였고, 해부설명회가 완료된 직후에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총 25문항이며, ①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및 과거 경험여부 ② 만족도 ③ 전공 연계성 ④ 운영 적절성 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⑥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점, '그렇지 않다'에는 2점, '보통이다'에는 3점, '그렇다'에는 4점, '매우 그렇다'에는 5점을 배정하였다.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 WIN(ver. 13.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전공 연계성, 운영 적절성, 언어적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 및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 등 각각의 점수를 비교, 검증하고자 t-test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단계적 선택방법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Variables		N	%
Gender			
	Male	52	51.0
	Female	50	49.0
Age (Years)			
	20~24	46	45.1
	25~29	50	49.0
	30~34	6	5.9
Previous Experience			
	No	67	65.7
	Yes	35	34.3
Total		102	100.0

2. 일반적 특성과 자기 평가 요인과의 상관관계

일반적 특성과 자기 평가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만족도, 운영 적절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20~24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5~29세는 만족도와 전공 연계성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낮게 나타났으며, 30~34세는 만족도, 운영 적절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낮은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해부용 사체에 대한 과거 설명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보다 만족도, 전공 연계성, 운영적절성,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2).

3. 자기 평가 요인과 학업성취도의 개별 상관관계

각 요인별 상관관계를 보면, 성별로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과거 설명 경험이 적었고($r=-0.213$, $p<0.05$), 운영 적절

[표 2] 일반적 특성과 자기 평가 요인과의 상관관계

Variable	Satisfaction			Linkage with major			Suitability of management			Verbal communication			Non-verbal communication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	p	parameter estimates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	p	parameter estimates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	p	parameter estimates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	p	parameter estimates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	p	parameter estimates
Gender															
Male			1			1			1			1			1
Female	-0.711	0.072	0.491	0.105	0.832	1.110	-1.192	0.439	0.304	-0.202	0.768	0.817	-0.011	0.983	0.989
Age (Years)															
20~24			1			1			1			1			1
25~29	-0.116	0.746	0.891	-0.675	0.198	0.509	0.401	0.488	1.494	-0.610	0.371	0.543	0.340	0.520	1.405
30~34	-0.383	0.563	0.682	0.320	0.738	1.377	-0.612	0.612	0.542	-0.843	0.578	0.429	-0.592	0.611	0.553
Previous Experience															
No			1			1			1			1			1
Yes	-0.286	0.419	0.751	-0694	0.210	0.500	-0.391	0.514	0.676	-0.334	0.633	0.716	0.412	0.442	1.510

[표 3] 자기 평가 요인과 학업성취도의 개별 상관관계

	Gender	Previous Experience	Score	Linkage with major	Suitability of management	Verbal communication
Previous Experience	-0.213*					
Score	0.182	0.009				
Linkage with major	-0.085	-0.163	-0.002			
Suitability of management	-0.232*	-0.132	0.076	0.436**		
Verbal communication	-0.093	0.048	0.196*	0.170	0.265**	
Non-verbal communication	-0.079	0.003	-0.012	0.255*	0.270**	0.580**

*p<0.05, **p<0.01

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r=-0.232, p<0.05). 해부학 성적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r=0.196, p<0.05)의 자기 평가가 높을수록 상관성이 있었다.

전공 연계성은 운영 적절성(r=0.436, p<0.0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r=0.255, p<0.05)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상관성을 보였다. 운영 적절성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r=0.265, r<0.01)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r=0.270, p<0.01)이 높을수록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또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r=0.580, p<0.01)이 높을수록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표 3).

4. 결론

결론적으로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평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과거 경험 유무 등의 일반적 특성과 상관없이 만족도, 전공 연계성, 운영 적절성, 언어적 및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모두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해부설명회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부설명회의 진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기존의 해부학 실습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해부설명회가 해부학 교육에 있어 의전원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미래 바람직한 의사상을 구현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5. 참고문헌

[1] Epstein RM, Hundert EM. Defining and assessing professional competenc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7(2), pp. 243-244, 2002.

[2] Haq C, Steele DJ, Marchand L, Seibert C, Brody D. Integrating the art and science of medical practice: innovations in teaching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Family Medicine, 36, pp. S43-50, 2004.

[3] Shaw BR, Han JY, Hawkins RP, Stewart J, McTavish F, Gustafson DH. Doctor-patient relationship as motivation and outcome: examining uses of an interactive cancer communication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76(4), pp. 274-82, 2007.

[4] Hahn HH, Kim S: Trends of Communication Skills Education in Medical School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1(1), pp. 35-42, 2009.